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'135금성호' 상황점검회의 주재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(토)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하였다.

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오늘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였고, 해경함정(P-126정)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.

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